

2023년 시군구 연간배출량

순위	시군구	배출량(톤/년)
1	광양시	31,670.5
2	포항시	22,849.9
3	당진시	21,855.4
4	단양군	16,278.7
5	동해시	11,732.9
6	여주시	10,088.4
7	울산 남구	8,740.4
8	삼척시	8,483.3
9	태안군	7,684.2
10	강릉시	7,657.1

당진시 굴뚝자동측정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3위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계획 취소하라!”



“제가 내놓은 물건을 친구가 잘 쓰면 좋겠어요!”

- ▶ 발행일 2024. 7. 10.
- ▶ 발행인 손창원
- ▶ 편집인 유형민
- ▶ 편집위원 팽말숙, 박희선, 조순형
임수진, 김정진, 박은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3 이달의 시

| 여름의 달밤 / 김소월

4. 지역환경이슈1

| 당진시 굴뚝자동측정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3위

6. 지역환경이슈2

| “석탄발전 취소하라”

8. 지역환경이슈3

| 현대제철 LNG발전소 설치사업 공청회 열려

9. 지역환경이슈4

| “간척지 축산단지 철회, 사육두수 제한부터 도입하라”

10. 지역환경이슈5

| “석탄폐쇄부지 LNG발전은 잘못된 해법, 사회적 대화부터 시작해야”

11. 지역환경이슈6

| 당진환경운동연합, 도비도서 2차 해변환경정화활동
당진환경연합, 베바스토코리아와 해양정화활동 펼쳐

12. 지역환경이슈7

| “제가 내놓은 물건을 친구가 잘 쓰면 좋겠어요!”

13. 지역환경이슈8

| 상반기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 진행 / 회원 소모임 난리부르스 열띤 공연

14. 충남환경이슈1

| “국민연금, 석탄발전 투자 중단해야”

15. 충남환경이슈2

| “충남도 탄소기반 ‘블루 수소’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16. 전국환경이슈1

| 11차 전기본 실무안,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17. 전국환경이슈2

| ‘세종보 하나만이라도...’ 4대강 보 철거촉구 결의대회

18. 전국환경이슈3

| “우리가 쓰는 전기, 할매들 눈물...”

19. 6월 살림살이

20. 6월 활동소식

22. 7월 주요사업 계획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회원가입



여름의 달밤

김소월

서늘하고 달 밝은 여름 밤이여
구름조차 희미한 여름 밤이여
그지없이 거룩한 하늘로써는
젊음의 붉은 이슬 젖어 내려라.

행복의 맘이 도는 높은 가지의
아슬아슬 그늘 잎새를
배불러 기어 도는 어린 벌레도
아아 모든 물결은 복 받았어라.

뻗어 뻗어 오르는 가시덩굴도
희미하게 흐르는 푸른 달빛이
기름 같은 연기에 떡감을러라.
아아 너무 좋아서 잠 못 들어라.

우긋한 풀대들은 춤을 추면서
갈잎들은 그윽한 노래 부를 때.
오오 내려 흐드는 달빛 가운데
나타나는 영원을 말로 새겨라.

자라는 물벼 이삭 벌에서 불고
마을로 은(銀) 슷듯이 오는 바람은
녹жат추는 향기를 두고 가는데
인가들은 잠들어 고요하야라.

하루 종일 일하신 아기 아버지
농부들도 편안히 잠들었어라.
영 기슭의 어두한 그늘 속에서
쇠스랑과 호미뽀 빛이 피어라.
-이하 생략-

작가소개

작가 김소월

1902년 평안북도 구성에서 출생. 본명은 정식(廷溍) 1915년 오산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이곳에서 '시(詩) 스승인 안서(岸曙) 김억(金億) 선생을 만나게 된다. 1920년 <창조>에 '낭인(浪人)의 봄' 등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 배재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간 1922년 <학생계>에 '진달래꽃'을 그리고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붉은 꼬꾸요', '비람의 봄', '봄 밤' 등을 개벽지에 발표.

당진시 굴뚝자동측정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3위

현대제철 전국 3위, 당진화력 전국 10위로 전년 동일
충청남도 자료 공개 후 9년 만에 처음 2위로 하락

2023년 시군구 연간배출량

순위	시군구	배출량(톤/년)
1	광양시	31,670.5
2	포항시	22,849.9
3	당진시	21,855.4
4	단양군	16,278.7
5	동해시	11,732.9
6	여주시	10,088.4
7	울산 남구	8,740.4
8	삼척시	8,483.3
9	태안군	7,684.2
10	강릉시	7,657.1

당진시 연간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

순위	사업장명	배출량(톤/년)
1	현대제철(주)	12,857.1
2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5,007.0
3	현대그린파워(주)	2,182.6
4	지에스이피에스(주)	1,156.6
5	(주)석문에너지	141.2
6	환영철강공업(주)	133.4
7	케이지스틸(주)	89.1
8	(주)대성에코에너지센터	70.8
9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48.6
10	크나우프석고보드(주) 당진공장	31.6

굴뚝자동측정기(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가 설치된 사업장의 2023년 대기오염 물질 연간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당진시의 시군구별 순위가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3위를 기록했으며 사업장별 배출량에서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소가 전년도와 같은 전국 3위, 10위를 차지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6월 26일 한국환경공단에서 공개한 전국 943개 TMS설치 사업장 3,383개 배출구의 2023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진시는 21,855톤을 배출해 시군구별 배출량 순위에서 광양시(31,671톤), 포항시(22,850톤)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당진시는 전년도 배출량 20,634톤 보다 1,221톤(5.9%)이 늘어난 21,855톤을 배출했으나 포항시가 전년도 배출량 17,211톤 보다 5,639톤(32.8%)이 늘어 시군구별 배출량 순위에서 당진시를 추월해 2위로 올라섰다. 당진시의 TMS 설치 대상 사업장은 25개 사업장이었다.

사업장별 배출량을 보면 현대제철은 12,857톤을 배출해 전년도 배출량 10,412톤 보다 2,445톤(23.5%)이 증가했으나 배출량 순위는 그대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5,007톤을 배출해 전년도 배출량 6,156톤 보다 1,150톤(18.7%)이 줄었으나 순위는 변동 없이 전국 10위를 유지했다.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발전소인 현대그린파워는 2,183톤을 배출해 전년도 2,188톤 보다 5톤(0.2%)가 줄어 22위로 1계단 하락했으며 지에스이피에스는 1,157톤을 배출해 전년

도 1,253톤 보다 97톤(7.7%)이 줄었으나 순위는 그대로 31위를 유지했다.

광역시도별 배출량을 보면 충남은 2023년 배출량 40,201톤으로 전년도 41,048톤 보다 847톤(2.1%)이 줄었으며 TMS 자료 공개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2위로 하락했다 전남이 전년도 36,471톤 보다 6,381톤 늘어난 42,852톤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충남에 이어 34,302톤을 배출한 강원도 3위를 기록했다.

업종별 배출량을 보면 제철·제강업이 70,695톤을 배출해 처음으로 발전업을 추월해 최다 배출 업종으로 기록됐다. 이어 발전업 62,997톤, 시멘트제조업 50,103톤, 석유화학제품업 21,603톤, 기타 15,043톤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배출량에 비해 제철·제강업은 크게 증가했으나 발전업, 시멘트제조업, 석유화학제품업은 모두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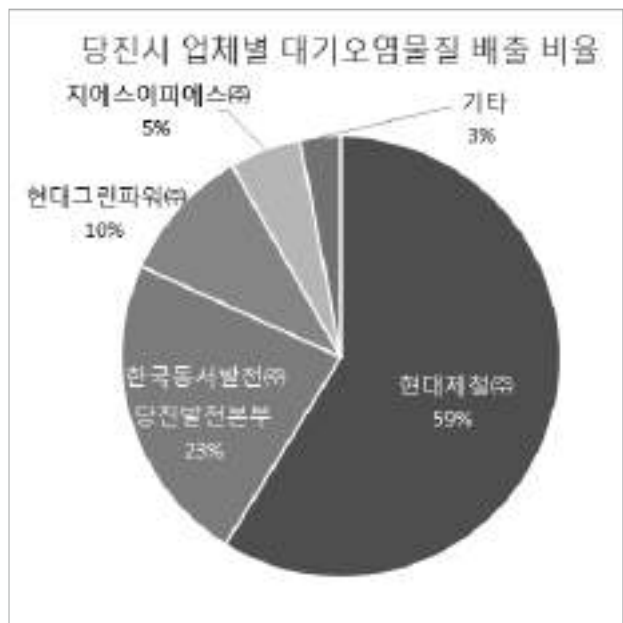
2023년 TMS 설치 사업장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220,441톤으로 전년도 배출량 215,205톤에 비해 5,236톤(2.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현대제철의 경우 당진제철소 안에 운영 중인 부생가스 발전소인 현대그린파워의 배출량을 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만 5천톤을 초과해 당진시 전체 배출량의 70%에 가깝고 당진화력발전소 배출량의 3배가 넘는다.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조속히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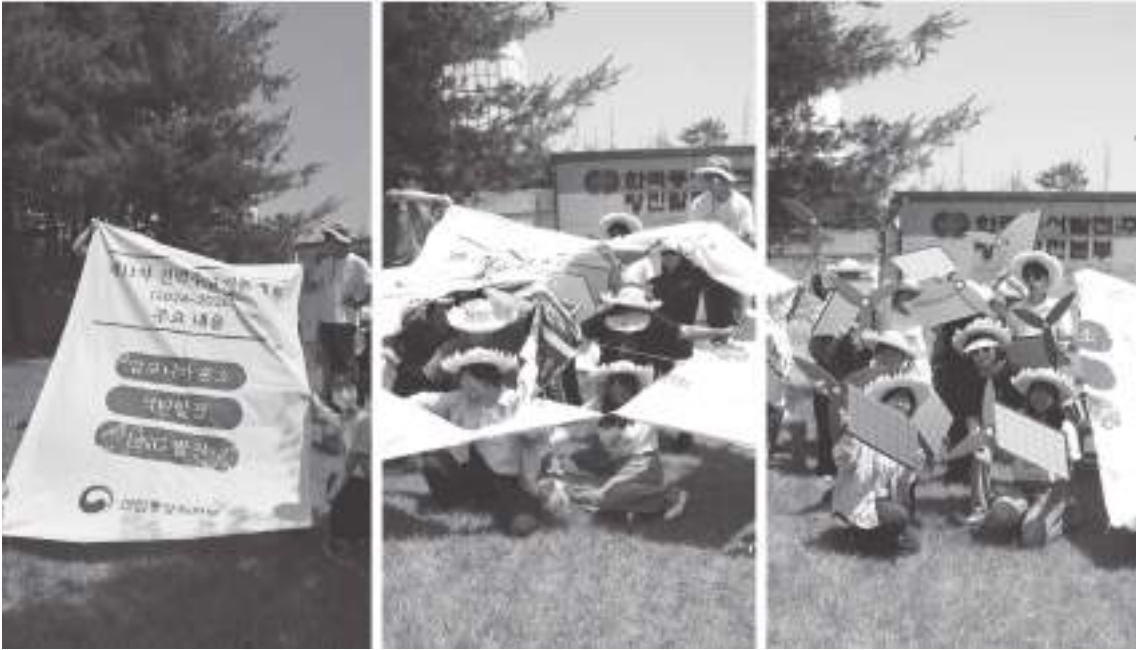
배출량 상위 전국 10개 사업장

순위	사업장명	배출량(톤/년)
1	포스코 광양제철소	28,266.5
2	포스코 포항제철소	20,080.3
3	현대제철(주)	12,857.1
4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9,422.8
5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8,019.1
6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7,670.8
7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	7,348.3
8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6,270.9
9	한라시멘트(주)	6,143.2
10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5,007.0



“석탄발전 취소하라”

11차 전기본 폐기...재생에너지 중심 재수립 촉구



지난 6월 13일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석탄을넘어서는 당진화력발전소 앞에서 암모니아 혼소, LNG발전 취소를 요구하며 전기본 계획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날 청년나래센터에서 충남 탈석탄 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당진시내를 돌며 석탄발전 조기폐쇄와 암모니아 혼소 계획을 취소하라며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석탄발전 조기폐쇄와 암모니아 혼소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난 13일 당진화력발전소 앞과 당진시내에서 진행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석탄발전 조기폐쇄와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에 암모니아 혼소(섞어서 태움)로 석탄발전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적은 반면 오히려 미세먼지 배출이 증가하므로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발전 폐쇄를 미루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10차 전기본에서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말 공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당진화력 9호기와 10호기에 암모니아 혼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석탄발전 종료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들은 조속한 석탄발전 폐쇄와 암모니아 혼소 계획 취소, 11차 전기본 재수립,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촉구했다.

[출처: 당진시대]

현대제철 LNG발전소 설치사업 공청회 열려



공청회에서 김정진 사무국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그래프를 들고 현대제철이 LNG발전소 건설하고 수소를 혼소되더라도 정부의 전력수급계획보다 5배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제철 LNG발전소 설치사업과 관련해 시민 단체가 기존 고로 폐쇄 시점을 정하지 않고 새로운 자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1일 송악농협에서 현대제철(주) LNG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와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김종호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패널로는 △김정진(당진환경운동연합) △차준국(당진참여연대)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선철(송악읍개발위) △이선군(송산면개발위) 그리고 사측 패널로는 △박진원(현대제철) △한명희(현대제철) △남정임(한국철강협회) △임윤수(전진이엔지)가 참석했다.

김정진 사무국장은 “고로를 줄이며 내세운 수단이 LNG가 문제인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탄

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실상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LNG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의미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건설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조상연 시의원 역시 “당진은 고로 제철에서 계속 (생산)하고 부생가스 발전소에서 800MW를 생산하고, 당진 화력에서도 계속 생산을 하면, 결국은 CO2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당진은 그만큼 부담을 더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악읍 한 주민은 “현재 가동 중인 고로 폐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에너지 전환시설로 가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기본적인 로드맵은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요청했다. (이하 생략)

[출처 : 당진신문 일부 발췌]

“간척지 축산단지 철회, 사육두수 제한부터 도입하라”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연합과 도청에서 기자회견 개최



지난 6월 18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손창원 공동의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18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은 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에 이어 당진환경운동연합 손창원 공동의장, 서천 미세먼지그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 채종국 사무국장, 살처분폐지연대 보리 활동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의 축산규모가 이미 과도하고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간척지에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축산규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간척지 축산단지 강행을 철회하고 가축 사육두수 제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충남의 돼지 사육 두수는 228만 2935두로 전국 사육두수 1099만 3960두의

20.8%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23년 6월 기준 시군별 돼지 사육 현황은 홍성군 61만 4940두(24.6%), 당진시 31만 2410두(12.5%), 보령시 29만 4751두(11.8%), 예산군 23만 8629두(9.6%)로 서해안권 4개 시군에 146만 730두(58.5%)가 몰려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손창원 공동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석문간척지에 30만두 규모의 축산단지를 조성해 기존 양돈농가를 이전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기존 양돈농가의 이전 보다는 대형 축산기업이 입주해 양돈 규모만 확대될 것”이라며 “충남의 양돈 규모는 이미 과도한 만큼 가축 사육두수 제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내포혁신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겨 충남의 축산 현황과 간척지 축산단지 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향후 간척지 축산단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글:사무국]

“석탄폐쇄부지 LNG발전은 잘못된 해법, 사회적 대화부터 시작해야”

당진환경운동연합, 심의수 시의원 5분 발언 논평



당진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심의수 의원
[제공: 당진시의회]

6월 24일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당진화력발전소가 5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당진시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에 나설 것과 석탄발전 폐쇄부지에 LNG발전소 건설 유치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석탄발전 폐쇄 이후를 대비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올바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폐쇄부지에 LNG발전 건설 유치라는 잘못된 결론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왜 추진하고 있는가?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LNG발전은 어떤가? LNG도 화석연료이며 석탄발전의 절반에 가까운 막대한

온실가스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36년 LNG발전 설비는 64.6GW에 달하지만 발전량은 62.3TWh로 LNG발전설비의 이용율은 11%에 불과하다. 수소 혼소 발전량을 포함하더라도 이용율은 조금 늘어난 15.7%에 그친다. 즉, 2036년이 되면 LNG발전은 출력 100%를 기준으로 1년 12달 중 겨우 2달도 채 가동하지 못하는 발전소가 된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의 LNG발전 전환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니며 일자리 전환과 지역전환의 해법도 될 수 없다. 석탄발전 폐쇄에 대비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은 LNG발전 건설 유치라는 잘못된 해법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다.

석탄발전 폐쇄 이후를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심 의원의 주장은 타당하며 올바른 대비를 위해서는 발전소 노동자, 지역주민 등 석탄발전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황 조사, 일자리 문제, 대체산업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석탄발전 폐쇄부지에 LNG발전소 건설 유치라는 잘못된 해법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의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심 의원과 당진시의회, 당진시에 촉구한다.

[글: 사무국]

당진환경운동연합, 도비도서 2차 해변환경정화활동

비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환경정화활동 펼쳐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이 지난 22일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 도비도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해변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해변환경정화활동은 탐동초 환경동아리, 계성초학부모회 등 30여명의 어린이와 학생,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해변환경정화활동은 당초 대호방조제 석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도비도 주변 해변환경정화활동으로 변경됐다. 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해 도비도에 도착한 시민들은 도비도 주변 해변을 돌며 페트병, 비닐봉투, 캔 등 낚시꾼과 관광객 등이 버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글: 사무국]



지난 6월 22일 도비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연합, 베바스토코리아와 해양정화활동 펼쳐

비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환경정화활동 펼쳐



지난 6월 19일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 직원들과 함께 석문방조제에서 해양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주) 당진공장 최용두 공장장을 비롯한 직원과 함께 19일 오전 석문방조제에서 해양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해양정화활동은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생산업체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 당진공장이 '2024 베바스토 소셜 워크'를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에 제안하여 함께 장소 선정 등을 거쳐 해양정화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글: 사무국]

“제가 내놓은 물건을 친구가 잘 쓰면 좋겠어요!”

계성초병설유치원 아나바다장터 수익 당진환경운동연합 기부



계성초 유치원 아이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이용하는 모습



26일 당진환경운동연합에 수익금을 후원하는 모습

유치원 어린이들이 아나바다 알뜰시장을 열고 수익금을 모아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써달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에 기부했다.

지난 6월 26일 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손창원 공동의장과 박은정 사무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25일 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이 자원순환을 위해 아나바다 알뜰시장을 열어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36만8,500원을 당진환경운동연합에 기부금으로 전달하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써달라는 뜻을 밝혔다.

(글: 사무국)

상반기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 진행

당진환경운동연합 역사와 활동 소개

2024년 상반기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이 지난 6월 27일 저녁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3명의 새내기 회원과 가입 추천 회원, 공동의장단, 사무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은 공동의장단 인사,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역사 및 활동, 지역 주요 환경 현안 안내, 참가 신입회원 소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 새내기 회원은 “오늘 들어보니 당진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 사무국]



지난 6월 27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새내기 회원들과 함께 환경운동연합의 역사와 활동소개 등을 진행했다.

회원 소모임 난리부르스 열띤 공연



난리부르스 소모임이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을 모시고 공연을 펼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 소모임 난리부르스가 지난 29일(토) 저녁 비가 오는 가운데 석문면 삼화리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30여명의 회원 등 관객들의 열띤 응원 속에 2팀의 게스트가 먼저 공연한데 이어 난리부르스의 공연이 이어졌다.

‘난리부르스’ 당진환경운동연합 소모임은 매주 월요일 저녁 시간을 내 함께 모여 연습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밴드이다.

[글: 사무국]

“국민연금, 석탄발전 투자 중단해야”

충남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예산홍성지사 앞 기자회견



6월 4일 국민연금 예산홍성지사 앞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남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4일 국민연금 예산홍성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미 1.45도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로 인해 대파,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이 우리 생명을 위협해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탈석탄을 선

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할 수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와 13조 원이나 증액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반환경적인 투자,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도덕적 투자”라고 비판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 공공부분에서의 역할이 크다”라며 “국민연금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해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충남도 탄소기반 ‘블루 수소’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기후위기 충남행동 2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충남도가 최근 ‘204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탄소에 기반한 수소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몰려 있다. 당진과 서산에는 석유화학과 제철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해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탄소중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충남도의 ‘탄소중립 계획’에 LNG(액화천연가스) 설비를 이용한 수소생산 계획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루수소의 경우 수소생산 과정에서 LNG를 사용한다. 때문에 탄소 발생 측면에서는 LNG 기반의 수소생산이 석탄화력발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한 수소 사용, 탄소중립 하지 않겠다는 의미”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45년 충남도의 탄소중립성장 기본계획’을 비판했다.(중략)

단체는 “충남도는 이번 계획에서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청정수소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수소 상용차, 수요 연료전지 등 대부분 LNG를 원료로 한 블루수소(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기반하고 있다. (블루수소의) 탄소격리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45년 충남도의 탄소중립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재수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이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성렬 기후위기 충남행동 대표는 “(중략) (LNG) 화석연료를 사용한 수소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탄소중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지적했다(중략)

조순형 기후위기 충남행동 집행위원장은 “(중략)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대체해야 한다”라며 “수소의 경우, 산업부문에서 꼭 필요한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하 생략)

[출처 : 오마이뉴스 발췌]

11차 전기본 실무안,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시민·환경단체들 “핵 발전에 매몰... 새로 만들어야”



지난 6월 3일 시민사회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수립하려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말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중략)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11차 실무안을 폐기하고 재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중략)

“11차 전기본, 전력 수요 확대... 에너지 수요 자체 줄여야”

우선 시민사회는 11차 실무안이 (중략)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경로는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 되레 전력 수요 전망을 확대하면서 전력 사용 감축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중략)

환경운동연합은 “11차 실무안은 전력수요를 늘리는 것은 무한정 받아주면서 수요관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실무안”이라며 (중략)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중략)

“가장 큰 문제는 ‘원전 확대’... 사고위험, 핵폐기물 처분 문제 우려”

시민사회는 11차 실무안의 가장 큰 문제로 원전 확대를 꼽기도 했다. 11차 실무안은 (중략)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대형 원전(1기당 1.4GW)을 짓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2035년에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SMR 1기를 첫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중략)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모든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해 가동하고, 신규원전을 더 늘린다면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상용화를 한 적도 없는 SMR마저 전력계획에 포함했다는 점도 충격”이라고 꼬집었다. (중략)

“재생에너지 제자리걸음, 수소발전은 탄소 감축 효과 없어”

그밖에도 시민사회는 11차 실무안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중략)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비해 실적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략)

단체들은 11차 전기본이 수소·암모니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수소·암모니아가 탄소 배출량 감축과 경제성 측면에서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다. (이하 생략)

[출처: 오마이뉴스 발췌]

‘세종보 하나만이라도...’ 4대강 보 철거촉구 결의대회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4대강 16개 보 철거 촉구 1차 전국결의대회’가 열렸다.

27일 오후 2시 세종시 금강스포츠공원 주차장에서 전국 환경단체 활동가 200여 명이 모여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금강 공주의 고마나루는 거대한 공주호가 됐다”며 “물의 흐름이 정지되고 메탄가스를 품은 기포만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다. 흰목물떼새가 산란하고 서식하던 모래사장은 전부 수몰되었고, 몇 년간 썩어 썩인 펄에 식생이 활착하면서 육지가 되었다. 환경부가 근거 없이 수문을 닫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22조 2천 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했다”며 “4대강의 수심을 6m로 마구잡이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해 우리 강의 허리를 잘랐다. 강은 빠르게 죽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호수화된 강에서는 떼죽음이 벌어졌다. 악화된 수질에는 4급수 지표종들이 득시글했다”며 “4대강 살리기는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라고 입을 모아 외쳤다.

이들은 “세종보 하나가 남았다”며 “유일하게 장기간 개방으로 자연성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단 하나의 강. 이제 윤석열 정부는 오리배와 수륙양용차를 띄우기 위해 세종보마저 닫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7일 세종시 금강스포츠공원 주차장에서 전국 환경단체 활동가 200여명이 모여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보 수문이 닫히면, 우리는 12년 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더불어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물정책 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 강을 모조리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세종시 환경부 청사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가 쓰는 전기, 할매들 눈물...”

밀양행정대집행 10년



지난 6월 8일 밀양시 밀양강 둔치공원에서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 윤석열 핵 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언놈이 씨부리도(어느 누가 떠들어도) 탈핵 탈송전탑이 미래다.”

(중략) 11일은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을 행정대집행을 내세워 강제철거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8일 10년 전 밀양 주민들과 함께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웠던 전국의 활동가들이 ‘희망버스’ 22대를 타고 다시 밀양으로 모여들었다.

전국 15개 지역 223개 단체 활동가 1500여명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4시 경남 밀양시 밀양강 둔치공원에서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 윤석열 핵 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활동가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밀양시 여수·고정·평밭·용희마을과 경북 청도군 삼평리 등 5개 마을에 들러서 주민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765kV 송전탑을 둘러봤다. (중략)

10여년 전 밀양은 국책사업인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때문에 전쟁터를 방

불케 했다. (중략) 밀양 주민들은 2005년 5월(중략)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에 나섰다.

당시만 해도 푹푹 뭉친 밀양 공동체를 갈라놓은 건 돈이었다. 한전은 (중략) 주민들에게 개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국책사업에 개별 보상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개별지원금은 이웃사촌끼리 등을 돌리고 싸우게 만드는 등 마을공동체를 파괴했다. (중략) 하지만 고정마을 13가구 등 18개 마을 143가구는 여전히 보상금 받기를 거부하며 싸우고 있다. (중략)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에너지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밀양 송전탑 투쟁의 폭력진압 책임자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주민과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는 요구를 내걸기도 했다. 한전이 2014년 6월 11일 경찰의 힘을 빌려서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같은 해 말 사업을 완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밀양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83명이 입건됐다. (이하 생략)

[출처 : 한겨레 발취]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4년 6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24,807,167	인건비	급여	4,660,000
회 비	개인회비	4,340,000		퇴직적립금	420,700
	법인회비	120,000		사회보험료	529,250
	계	4,460,000		계	5,609,95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214,100	경상비	복리후생비	-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91,600
	계	214,100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1,951,630
	계	-		기타운영비	144,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2,188,130
보조금	보조금사업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
	계	-		생태보전사업	1,262,50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생활환경사업	9,485,000
	계	-		조직 회원사업	514,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12,754		홍보사업	229,360
	계	12,754		모금사업	-
전입금	전입금	-		연대사업	652,027
	계	-		기타사업	-
차입금	차입금	-		계	12,142,887
	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월수입 총계		4,686,854	월지출 총계		19,940,967
수입 합계		29,494,021	지출 합계		29,494,021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1인 시위

6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당진시에너지전환포럼 워크숍

지난 6월 4일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당진에너지전환포럼 회원들과 함께
암모니아, 수소 혼소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6월 운영위원회 회의

6월 5일 당진환경운동연합 6월 운영위원
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의날 기념 현대제철 LNG발전 계획 규탄 캠페인

6월 5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앞에서 환경의 날을 맞아 현대제철 LNG 발전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연수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연수 중 들쭉날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돌아보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생물다양성 모니터단 '나도 시민 과학자' 수료식

6월 16일 생물다양성 모니터단 '나도 시민 과학자' 참가 학생들이 총8차에 걸쳐 교육을 마치고 당진농업기술센터에서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01 일반사업

- ❖ 7/01 충남도 정의로운전환 특위 준비 회의 - 충남공감마루
- ❖ 7/02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충남캠페인 평가 회의 - 온라인
- ❖ 7/03 계성초 병설 유치원 환경교육 - 계성초 병설 유치원
7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7/05 정의로운 전환 포럼 토론회 - 온라인
에코생협 당진점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원의 밤 - 아산 민들레밥상
- ❖ 7/08 ~ 7/09 전국 기후활동가 대회 -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 ❖ 7/09 당진지시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워크숍 - 당진상공회의소
- ❖ 7/10 간척지 축산단지 관련 도지사 방문 대응 - 당진시청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만들기 워크숍 - 서울역 회의실
- ❖ 7/11 9월 기후정의행진 1차 조직위 회의 - 온라인
배출권거래제 전환부문 세미나 - 온라인
- ❖ 7/12 항만 탄소중립 관련 기후솔루션 간담회 - 사무실
- ❖ 7/13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창립 기념행사 - 예산 조곡리 일원
- ❖ 7/16 남부노인복지관 송전탑 현장견학 안내 - 정미 사관리 일원
- ❖ 7/17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온라인
- ❖ 7/18 해상풍력 지역현황 공유 세미나 - 서울 비지티플레이스
- ❖ 7/22 ~ 7/24 공공기관 1회용컵 모니터링 - 당진시청
- ❖ 7/22 하동 가스발전 산단 계획 변경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세종 산자부 앞
녹색철강네트워크 회의 - 온라인
당진지시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분과 작은워크숍 - 당진시청
- 7/25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대전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7월 26일(금)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현대제철 자가 LNG발전소 건설
- ❖ 합덕·순성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건설
- ❖ 석문간척지 축산단지 추진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서수행(원당동)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신영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기재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운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자현 김재성 김재진 김정근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립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중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혜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선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여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영진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라 유경자 유난영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주홍 윤혜신 은승채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선미 이선이 이순영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석 이 월 이은향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종필 이종학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진선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해슬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욱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종광 임종석 장경숙 장규진 장덕기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병준 정본환 정봉식 정석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종한
 정중섭 정치용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순형 조용재
 조한영 조희두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종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서운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수빈 최연이 최오상 최완택 최은진 최인호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흥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도표 홍심선 황성렬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글로벌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 7월 4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지구의벗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 신청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활동하는 시민환경단체입니다. 당진의 환경을 지키고 미래를 가꿔나가는 일, 함께 할수록 힘이 납니다

회원정보

• 이름 : _____ • 휴대전화 : _____

• 주소 집 직장

CMS 정보

•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후원액 : _____ 만원

• 예금주 이름

• 예금주 생년월일

• 출금일 10일 20일 28일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

회비나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발급에 필요한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회원 관리 및 회비 결제를 위해서만 쓰여지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 주셔야 회원 가입 및 회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원 관리 및 안내, 회비(후원금) 결제

- 수집항목 : 회원 정보(이름, 휴대전화, 주소 등), 결제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등)
 동의합니다.

2)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 제공항목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등
 동의합니다.

2024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 _____(서명)

♣ 보내실 곳 ▶ 팩스/ 355-0443 ▶ 이메일/ dangjin@kfem.or.kr